

백운규 “규제혁신… 기업위한 산업부 될 것”

(산업부 장관)

산업부, 12대 기업 CEO 간담회

“규제혁신 등 통해 기업투자 지원” 이달 말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말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어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최근 기업 투자와 고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 애로와 건의를 청취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등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와 지주사 투자 규제 등 신규 투자를 막는 규제 개선, 기업 투자에 필요한 산업 인프라 적기 확충, 신산업과 환경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백 장관은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기업을 위한 산업부”(Ministry for Enterprise)가 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규제혁신, 융·복합 첨단산업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 근로시간 단축 안착, 통상현안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기업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말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

최하는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기업 투자에 필요한 인프라가 제때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지난달 발표한 ‘수소차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같은 분야별 융·복합 첨단산업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세액공제 확대 등 다른 부처

가 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산업부가 단순히 기업 건의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진정한 조력자’로서 산업정책 관점에서 담당 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에 대해서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기아차 박한우 사장, 두산 동현수 부회장, 롯데 황각규 부회장,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이마트 이갑수 사장, 포스코 오인환 사장, 한화 최선욱 사장, 현대중 권오갑 부회장,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GS 정찬수 사장, LG화학 손옥동 사장,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서 공기업이 제외되고 산업부 담당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들로 선정됐다. 산업부는 12대 기업과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민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간담회 후속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정책브리핑

해수부

로마 FAO수산물위원회 참석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33차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수산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국제적인 수산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세계수산대학 시험사업 운영 경과 발표 등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지지 교섭 활동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회의에는 114개 회원국의 정부대표단과 전문가, 각종 국제기구 대표단들이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세계 수산업 현황,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 등의 수산분야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2018 FAO 세계 수산·양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1억 7100만 톤으로 어획 생산량은 정제된 반면, 양식 생산량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어족자원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어획량을 제한하고, 양식업을 장려하는 국제적인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최신용 기자

노동부-고용정보원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설명회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17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2018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17에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리베로호텔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기준·평가지표·참여방법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도 주어진다.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성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구직자가 신뢰하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성장하는데 인증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한돈자조금

나눔캠핑 페스티벌 성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15일에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에서 ‘2018 한돈과 함께하는 나눔 캠핑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캠핑 시즌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우리돼지 한돈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맛을 널리 알리고, 저지방부위에 대한 관심을 높여 한돈 전체에 대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행사는 참가비 전액과 한돈 상당량을 전달하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동지회에 기부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총 54팀이 참가한 이번 캠핑은 참가 가족 전원에게 한돈 삼겹살, 한돈 불판, 한돈 기념품 등 풍성한 참가 기념품을 제공하고, ▲한돈 아수리장(물총싸움), ▲한돈 보물찾기, ▲버스킹 공연 등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박인용 기자 parki7854@

“美·中 무역분쟁, 기술혁신·신시장 개척으로 정면돌파”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美 자동차 232조·FTA정책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미 자동차 232조’, ‘미·중 무역분쟁’ 등 핵심 통상현안과 FTA 정책, 신남방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를 기점으로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들은 관세 부과와 보복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고 있다”며 “미국의 EU, 캐나다, 멕시코, 일본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추격, 지역패권 경쟁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오히려 기술혁신과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면서 통상환경 악화를 정면 돌파하겠다”며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수출에 손실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계기로 더 큰 것을 얻는 긍정적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 232조에 대해서는 미측 의사결정 핵심인사를 만나 한국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주 미국의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민관합동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다.

그는 “의사결정 관련 핵심인사를 만나

한국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 개정협상 당시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만나면서 이들과 상당한 신뢰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산업부는 ▲대미 통상현안 대응 방향 ▲주요 FTA 추진 계획 ▲신남방 통상정책 방향 등 3개 안건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미·중 통상분쟁과 관련해 범부처 비상대응체계 구축하고,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응반을 상시 가동해 수출 시장 영향 모니터링 및 수출예로 발굴·해소에 노력하기로 했다.

신남방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2020년 한·아세안 교역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산업부, 21개 지방기업에 673억 지원

전북 6곳·충남 2곳·경북 3곳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2018년도 제2차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1개 기업에 총 673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북에 투자하는 6개 기업에 231억원, 충남 2개 기업에 120억원, 경북 3개 기업에 89억원, 전남 3개 기업에 69억원 및 기타 지역에 153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별로는 식품·음료제조분야 5개 기업에 276억원, 화학분야 4개 기업에 170억원, 전기전자 2개 기업에 25억원 및 기타 업종에 19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의 지방투자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개 기업이 전북 김제를 투자지역으로 결정했는데 이들 기업은 모두 식품관련 제조업체다. 이는 해당 지자체가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과 농식품 가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남 목포에 투자하는 2개 기업은 기존보다 상향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적용받아 지방투자보조금 54억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된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지방투자보조금 지원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한 바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주담대 기준 ‘코픽스’ 10개월째 상승

은행聯, 전월대비 0.02%p ↑

은행권 변동금리 주담대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잔액 기준으로 10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6월 기준 코픽스가 잔액기준으로 1.85%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상승했고,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는 1.84%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코픽스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수신

상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 하락한다.

일반적으로 코픽스가 오르면 이에 연동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오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잔액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지만, 신규취급액 기준은 잔액기준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며 “코픽스와 연동하는 대출을 받을 땐 이런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